

종교의 목적은 진리 구현이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구현이 종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죠? 사람이 변치 않을려면 죽어야 변치 않는 거예요, 안 죽어야 변치 않는 거예요? 안 죽는 종교가 종교지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악과와 생명을 모르는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선악과와 생명이 알려진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의 영입니다. 구세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무궁토록 변치 않는 영생의 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세주는 감로이슬 성신을 내리는 겁니다. 감로이슬성신이 영생의 영이요 감로이슬성신을 받으면 사람이 죽지 않고 이제 그대로 병도 안 걸리고 병걸렸어도 병이 낫는다는 말씀이 불경과 격암유록에 쓰여 있다고 그랬죠?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음을 내어 주리라(이사야 26:19). 맨 마지막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 15:26). 그런 말씀이 쓰여 있죠? 감로이슬성신이 사망을 멸해버리는 영이니 감로이슬성신을 말세에 내리는 거예요, 초창기에 내리는 거예요? 말세에 내리는 거죠?

말세라는 것이 언제인 줄을 기독교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당시에 예수가 그때가 말세라고 하였던 겁니다. 예수는 말세가 언제인지를 알았던 거야, 몰랐던 거야? 몰랐던 거죠? 격암유록에 쓰여 있기를 20세기 후반에 정도령이 나타나서 천지개벽을 한다, 그랬습니다. 천지개벽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세입니다. 끝 말(末)자 인간(世)자 인간(世)이 끝나는 겁니다. 인간을 찾아

볼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신으로 화해지는 시대가 곧 오게 되었는데는 겁니다.

마귀 신을 받은 예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세가 되도록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말세가 될 때까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될 때까지 한 사람도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것은 예수가 성경도 몰랐고 하나님의 영이 되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정확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자기는 성령으로 임태되지도 않았고 성령을 받지도 않았다는 자백이요? 성령을 안 받았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수는 또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30절 "내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 예수가 자기 뒤에 이 세상 구세주가 되는 이 세상 임금은 자기 뒤에 온다고 말을 했죠? 그 말은 진실된 말씀이요, 거짓말이요? 그 말만은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자백한 말이 한 마디가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도 역시 나는 성불하지 못했다. 나의 제자들이 나더러 성불했다고 하는 제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분명히 성불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죽은 후 3007년 만에 생미륵불이 이 세상



구세주 조희성님

에 한국 땅에 오신다. 한국 땅에 오신다고 말을 안하고 계두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생미륵불이 오시게 되어 있다. 계두왕이 신라 나라의 탈해왕의 아들이요? 탈해왕이 아들을 못 낳는 고로 이웃집에서 아들을 낳아서 왕궁의 문턱에다 갖다 놓고 가니까 아들이 되는 어린아이를 탈해왕이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키웠던 거죠? 아들이 없는 탈해왕이 이제 계구넛밭이로 들어온 계두왕을 왕으로 삼게 된 거죠? 계두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생미륵불이 나타난다는 불경의 말은 계두왕은 신라 나라의 왕인고로 한국 나라에서 생미륵불이 오신다는 겁니다.

동방에서 의인이 출현한다

옛날의 인도의 시성 타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정시절에 일본에 가서 말하기를 앞으로 조선 땅은 동방의 빛이 될 것이다, 했던 거죠? 동방의 빛이 된다는 말

을 한 것은 한국 땅에서 태양빛 이상가는 빛이 발하는 구세주가 나온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게오르그라고 하는 소설가도 똑같은 말을 했죠? 조선 땅에서 동방의 빛이 될 것이다,라고 그랬죠? 옛날부터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 구세주가 되는 사람이 한국 땅에서 나타난다고 여러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 없어?

동방나라에서 의인 한사람을 불러일으킨다고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에 쓰여 있죠? 열국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그랬죠?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그랬죠? 우리 한국 나라를 대륙으로부터 쪽 빠져나온 반도의 나라죠? 땅 끝이 되고 모퉁이 나라가 되는 거죠?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킨다고 했으니까 한국 땅에서 동방의 의

인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거죠?

정도령을 고대하던 선조의 후손들이 여기에 왔이다

옛날 할아버지들이 정도령이 나타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말을 했어요,안 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은 정도령을 만나보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지만 그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오늘날 우리 제단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정도령이 나오는데 나는 못 보지만 너희들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제단에 많이 있죠?

승리제단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하나님 자식이라는 걸 배우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자식이요 사람이 곧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돼 있는 것이 성경에도 쓰여 있고 불경에도 쓰여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요한복음 3:5)는 말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요, 하나님이 안돼도 구원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천당이라고 하는 곳은 하늘나라요 천당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가 천당이기에 하나님 안 되면 천당이 갈 수가 없는데도 가짜 구세주 예수는 자기만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사람이 전부 신들이요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이 시편 82편 6절에 쓰여 있죠? 지존자가 하나님의 대명사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저께 와가지고 사람

도 동물 아닙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서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사실은 동물이예요, 동물 아니예요? 사람은 동물 아니야, 아시겠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말하기를 영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영적 동물이라 것은 신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명심 안해야 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죠? 사람만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있느냐 하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의 핏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피가 조상의 피예요, 동물의 피예요? 조상의 피요? 인간의 조상이 아담과 해와요?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말이 성경에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에덴동산을 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은 천당이라고 그러죠? 아담과 해와는 천당에서 살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해와 하나님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성부와 성자 성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성경을 알아서 그래,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산다고 찬송가가 가사에 쓰여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러죠?*

2003년 2월 15일 설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4장 요셉》

(1) 아라비아 상인을 따라 애굽으로 간 요셉

도단에서 요셉은 레아의 자식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했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을 따라 애굽으로 간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 동침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으로서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정조를 지켰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종하시어 그를 애굽의 총리대신으로서 애굽 왕 다음 가는 지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1) 아라비아 상인을 따라 애굽으로 간 요셉

피 뭍은 채색옷을 보게 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지만, 요셉은 죽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과 함께 애굽으로 간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 밑의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보디발 시위대장 집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삭의 후손이었기에,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애굽인의 종으로 살아가게 할 바에야 차라리 자식이 없는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

하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계시면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 요셉은 보디발 시위대장 집 온 식구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은 자기 집 일처럼 집안일을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 집에 온 다음부터는 재산이 날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과 밭의 곡식에 이르기까지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집 주인은 이러한 요셉을 더욱 사랑하고 그 집의 재산 전부를 관리하는 책임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일을 잘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아주 현철하게 잘 생긴 젊은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은근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급한 용무로 청지기(가정 총무) 요셉에게 알릴 경황도 없이 집을 나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종을 시켜 '시위대장께서 집무실에서 부르신



요셉이 시위대장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

다고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요셉은 시위대장이 출타 중일 때 부인의 개인적인 부름을 받을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휘하에 있는 종을 대동하여 종과 함께 부인의 면전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의 내외분이 함께 집무실에 계시는 줄 알고 그의 종은 시위대장의 종들과 함께 문밖에 대기시키고 평소와 같이 홀로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위대장은 없고 부인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매우 민망해하며 그의 마음속으로 부인의 거짓 호출에 속았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요셉에게 자신과 더불어

동침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뒷걸음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주인 보디발 시위대장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집안 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시며 오직 저를 신임하십니다. 주인께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저에게 위임하셨기에 이 집안에서는 내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냉정하게 부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문밖으로 향하자, 부인은 황급히 쫓아와 요셉의 망토(겹옷)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가 그의 망토를 놓아주지 않자 요셉은 그녀의 손에 망토를 팽겨진 채로 내버려두고 집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거꾸로 요셉이 자기 자신을 욕보이려고 했다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치면서 달려 나왔습니다. "저 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부인의 외침을 듣고도 주위에 있던 시위대장의 종들과 요셉의 종은 감히 요셉을 범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감옥으로 들어가는 요셉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의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네

그리하여 그만 무안한 마음과 원망을 품게 된 주인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을 나쁘게 말하며 모함을 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은 조용히 요셉을 불러 독대하였습니다. 시위대장은 요셉에게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묻는 것조차 요셉 자신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급한 용무로 자네에게 알리지 않고 출타한 것이 화근이 되었네. 이 모든 일이 나의 불찰에서 비롯된 것이네. 하지만 이번 일이 생긴 현장에 자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없기 때문에, 나로선 자네를 구할 방책이 없네. 불편하고 고생스럽겠지만 자네를 내 집안에 있는 옥에서 지내는 것이 그나마 나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한 그대의 건강을 보살필 수 있겠네."

시위대장 보디발의 말을 묵묵히 경청한 요셉은 주인에게 "나는 주인 마음을 욕되게 한 적이 없다고 변명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번 일로 옥중으로 가는 것도 필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인의 양자로 들어오기 전에 광야의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 저를 구출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니 시위대장께서는 이번 일로 그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으로서 왕의 죄수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다음호에 계속)*

안철라